

##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말씀: 행13:29-31

### 도입

에베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 목사의 책무: 위로의 말씀, 아더 핑크의 글 아주 작은 단어, 엄청난 의미 포함: 영어로는 'But'이며 우리말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 우리말 개역 성경의 특징: 수려한 번역, 매끈한 번역, 축약형 번역,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부응 문제 중 하나는 접속사 처리가 잘 되지 않아 문장의 연결이 끊어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 우리말 성경의 문제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접속사 처리

영어 성경이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 접속사들이 잘 처리되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접속사 'But'은 영어 성경에 총 3994회

'그러나'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함: 어떤 일이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결말은 다른 경우

추리 소설의 결론이 생각과 다르게 나는 경우

성경에서 '그러나'의 용례도 그와 비슷하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사건이 역전된다.

미국의 고속도로는 끝이 없을 정도로 길며 매우 단조롭다. 죽은 친구 이야기

그런데 이런 길을 가다가 옆으로 구부러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나 상쾌할까?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

###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로 연결이 되면 더더욱 놀랍다. 이런 구절은 도무지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에 간섭하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실 때 사용된다.

영어로 'But God'은 총 43회, 'But the Lord'는 50회, 'But Jesus'는 28회

신약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테반은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를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족장 요셉에 대한 창세기 기사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행7:9-10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9절) ★★★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간섭하셔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은혜를 베푸신다.

###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드러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 (1)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행9장)

사도 바울: 철저한 유대교 신자, 율법 조목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던 바리새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즉 유대교인들이 고대해 오던 메시아라는 말에 분개

지도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

스테반이 순교할 때에는 폭도들의 옷을 맡아 지키는 일

사도행전 9장: 이방 나라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다. 4-6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때에 주께서 이르셨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서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에 사울이 떨며 심히 놀라 이렇게 말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 13절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는 탄생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그러나 주께서"라는 구절이 나온다(15절). 16절까지

아나니아는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에게 안수하였다.

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우리 주님을 위한 가장 큰 사도가 된 놀라운 일이 바로 "그러나 주께서"라는 구절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비한 일이 많다.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

#### (2) 구원의 하나님(엡2장)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가장 추악한 도시들 중 하나였다. 그곳은 마귀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유물을 보면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자유롭게 매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전 창녀들이 있어서 누구나 이방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는 성적인 쾌락에 빠지곤 했다. 바로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고 바울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며 거기서 2년 정도 머물렀다. 바로 이런 추악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지역 교회 중 가장 훌륭한 교회로 뽑히는 에베소 교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자.

자, 에베소 성도들 중에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예전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그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그곳 성도들은 자기들이 죄인들로 거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극심한 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가 또 등장한다. ★★★

엡2:4: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에베소 사람들은 한 때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옆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길로 돌아서게 하셨다. 바로 그 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아직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회개하면서 돌아서기 바란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삶 속에 간섭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옛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

### (3) 부활의 하나님(행13장)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복음 선포자였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설교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할 때에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 바로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보자(행13:26-29)

이제 예수님은 죽어서 돌무덤에 들어갔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것이다. 이제는 저 목수가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겠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안도의 숨을 쉬려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는 구절이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3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느니라.”

바울 사도의 전 생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생애였다. 여러분은 어떤가? 어디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가? ★★★

### 결론

나의 이야기, 미천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 대학, 유학, 박사 학위, 신학, 성경 번역, 목사 ★★★

죄 가운데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